

태풍 링링 대비 학교안전관리 철저

전북교육청, 학사운영 조정·시설점검 등 만전

13호 태풍 링링이 북상중인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5일 학사운영 조정 및 시설점검 등 학교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안내문에서는 안전수칙 교육 실시, 등하교 시간 조정·휴업 등의 학사일정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해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상황발생 즉시 피해상황 및 학사일정 조정 현황을 보고토록 했다. 학사일정 조정은 학교교육과로, 피해상황 보고는 시·군 교육지원청 및

정책공보관 학생안전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태풍 링링이 오는 8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되면서 6일 오전 9시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상황실을 운영한다. 태풍주의보 단계에서는 학생안전관리지원단으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태풍경보로 격상되면 학생안전관리지원단과 학교교육과·재무과·시설과 등

재난담당부서 담당자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는 기상특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면서 "특히 학사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학부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등교일 오전 6시 이전에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업에서 벗어나 대학문화의 즐거움 '만끽'

전주교대, 동아리문화제 성료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걸쳐 2019학년도 동아리문화제를 성황리 실시하고, 젊음의 열기로 올해 여름의 남은 무더위를 날려보냈다.

'동아리 문화제'는 각 분야의 동아리들이 한 해 동안 활동한 성과를 학우들에게 선보이며, 동아리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동아리 간 결속을 다지는 행사로써 대학 구성원간의 협동심과 애교심을 드높이고자 전주교육대학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축제이다. 이번 축제는 전주교대 황학당 및 캠퍼스 일대에서 랜덤 공 튀기기, 동전

던지기, 네글자게임, 브랜드말하기, 손가락게임 등의 상설프로그램과 '파노라미', '광주교대 동아리의 초청공연'으로 구성되었다.

또 전주교대 동아리 '올림존', '카스탈리엔', '다스'의 공연과 먹거리 장터가 운영되어 재학생들이 잠시 학업에서 벗어나 대학문화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우영 총장은 축사에서 "이번 2019년 동아리문화제의 막을 올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좋은 환경에서 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길 바란다. 지금의 다양한 경험들이 졸업 후 초등교원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부딪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대학교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걸쳐 2019학년도 동아리문화제를 성황리 하고, 젊음의 열기로 올해 여름의 남은 무더위를 날려보냈다.

故 안재봉님, 고창고에 '높은 뜻 푸른 꿈' 장학금 기탁

올해 개교 백주년을 맞이한 고창고등학교(교장 변우용)는 고 안재봉님의 유족들이 장학금 일천만원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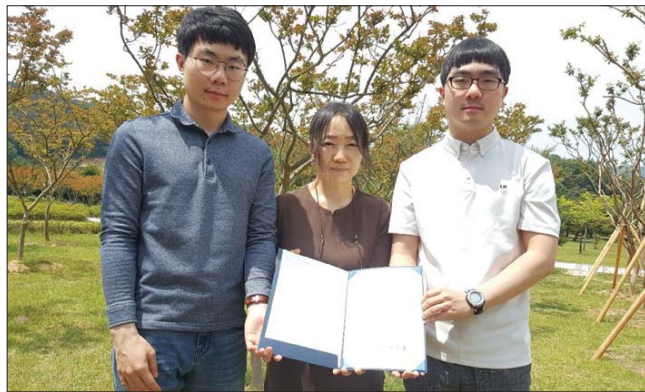
고 안재봉님은 고창고등학교 55회 졸업생으로 재학시 어려운 형편으로 학교장학금과 후원으로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다.

학교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간직하고 살아왔던 고인은 장학재단을 만들어 보답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갑작스런 죽음으로 장학재단 설립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고인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학창시절 받았던 은혜를 갚겠다는 심정으로 장학금 기탁을 유언으로 남겼다. 고인의 유지에 따라 유가족은 1000만원이라는 장학금을 학교에 기탁했다.

유족인 염소영님은 장학금을 기부하면서 "높은 뜻 푸른 꿈"을 가진 장학생이 대학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고는 고인의 뜻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고, 내년 2월 졸업식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고 안재봉님의 유족들이 고창고등학교에 장학금 일천만원원을 기탁했다.

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생활규정·학교자치활동' 연수 추진

전북도교육청은 찾아가는 학교생활규정 및 학교자치활동 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교원 인식을 확산하고,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합리적인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율과 책임 중심의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일 시작된 연수는 오는 10월 18일까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제·개정 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합리적인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율과 책임 중심의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컨설팅과 학급자치, 학생회 선거, 임원연수, 회의, 행사기획 등 학생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학생자치활동 운영방안 공유 등이다. 도교육청은 10월 말까지 학교생활규

정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11월에는 학교생활규정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인식을 높여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생자치활동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수의대 서병주 박사·정창기 대학원생 아시아양돈수의학회 우수 연구 포스터상 수상

돼지 회장염 검사 획기적 개선, 질병 백신 개발 연구 발표

전북대학교 서병주 박사(수의대 생체안전성연구소 전임연구교수·지도교수 조호성)와 정창기 대학원생(수의대 박사과정·지도교수 김원일)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양돈수의학회(APVS)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병주 정창기

이번 학회에서 서병주 박사는 '돼지 회장염 원인균의 항생제 내성 검사를 위한 새로운 검사법 개발'이라는 연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연구는 전 세계 양돈 산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 회장염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1일로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내용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정창기 대학원생은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한국형 2형에 대한 키메라 백신에 대한 교차 방어 효과'라는 연구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연구는 국내에 다양한 유전형

의 바이러스가 만연해 있는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를 방어할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기 어려웠으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키메라 백신을 개발한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2019 APVS에는 아시아 15개국, 유럽 7개국, 아메리카 2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등에서 양돈 수의사와 연구자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대회 기간 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을 포함한 다양한 주요 질병에 대한 학술발표가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통일 공감대 확산 나선다

전북대, '옴니버스 특강 강좌지원 사업' 선정... 명사 초청 특강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통일부가 지원하는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사업' (책임자 안문석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선정돼 통일 분야 명사를 초청해 릴레이 특강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통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대북·통일 정책을 이해하고, 통일 시대를 살아갈 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모색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전북대는 통일부 지원을 받아 2학기에 모두 6번의 명사 특강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을 통한 첫 특강의 문은 6일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연다. 김 장관은 이날 전북대 인문사회관 201호에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대북정책 전반의 내용과 그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 방안이 이야기한다.

이어 16일에는 국회 안호영 의원이 '지방의 남북교류의 정당의 역할'에 대해 특강하고, 26일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국가발전 전

략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를 전한다.

또 10월 7일에는 김진향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이 개성공단의 의미와 현재의 상황을 전하고, 10월 24일에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전 통일부장관)이 '북미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해 특강한다.

마지막으로 11월 12일에는 임형준 WFP 한국사무소장이 '북한의 식량난과 대북지원의 방향'을 주제로 북한 상황과 인도적 지원의 의미를 전한다.

이 밖에도 특강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DMZ 등을 돌아보는 1박 2일 간의 생생한 현장체험 학습도 진행한다.

안문석 교수는 "이번 사업 선정은 통일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관심과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명사 특강을 통해 통일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오직, 진안홍삼효능으로 즐기는 재미

- ① 기억력 향상 캔쌈기
- ② 혈행개선 파워 게임
- ③ 피로개선 버블버블
- ④ 면역력 UP 홍삼하우

진안홍삼 축제

2019 10.9(수) ~ 13(일)
마이산 북부 일원
(전북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60)

주관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문의처 063)430-2391-3 jinanfestival.com

10월 9일(수) 진안홍삼 한류콘서트
(아스트로, 모모랜드, 이로한, 왈라리 등)

10월 10일(목) 마이산 락 페스티벌
(크라임넷 등)

10월 11일(금) 진안홍삼가요제
(노라조 등)

10월 12일(토) 트로트 페스티벌
(송대관, 설운도, 장윤정, 김연자, 신유, 현숙 등)

10월 13일(일) 전국 탑 10 가요쇼
(미스트롯 : 정미애, 홍자, 정다경 등)

궁금하면
홍삼축제로
놀러 오세요!